

18일(월)

민주광장 동상앞

시선에 갇힌 여성들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19일(화)

민주광장 동상앞 낮 12시 / 개막식

춤동아리 '하리'의 축하공연

거울깨기 이벤트

푸른샘 저녁 7시 / 극단 마녀의 퍼포먼스

20일(수)

여학생휴게실 저녁 6시

“내 몸? 불편함/자랑스러움, 그 복잡한 감정들...”

- 짧은 영화보고 이야기 합니다.

21일(목)

여학생휴게실 저녁 6시

“나의 몸에 걸쳐진 것들로부터의 자유”

- 상처받은 물건들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교환합니다.

PS: 날마다 변해가는 조형물을 관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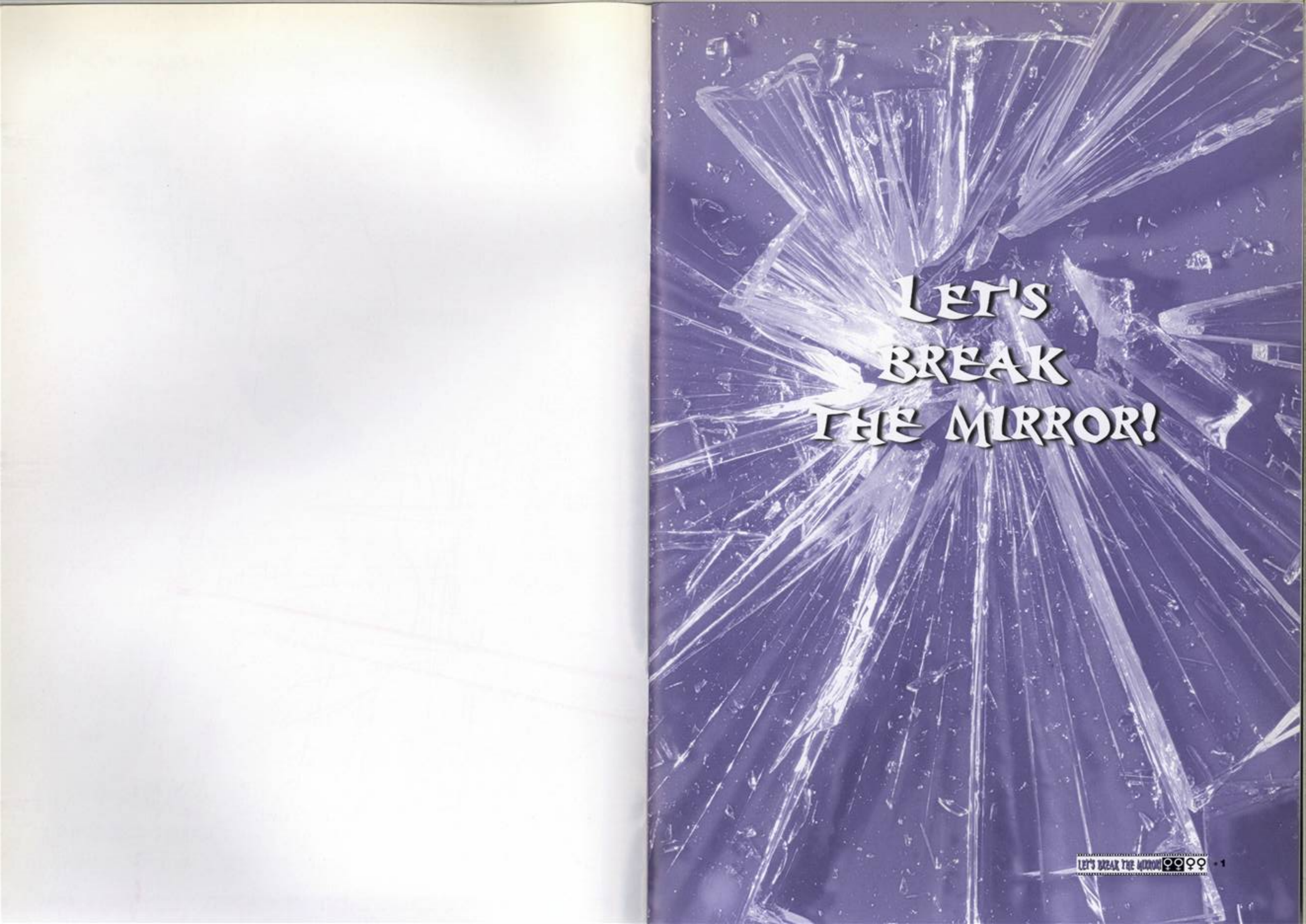
여성의 몸을 향한 그들의 시선을 거/부/한/다.



5월 18일(월)~22(금)

주최/ LET'S BREAK THE MIRROR 문화제기획단

후원/ 연세대학교 제10대 총여학생회



LET'S
BREAK
THE MIRROR!

LET'S BREAK THE MIRROR!

오늘도 어김없이 거울에 나를 비춰본다.

얼마전부터 시작한 화장.... 점점 익숙해져가지만

거리에서 흔히 마주치는 예쁘기도 한 많은 그녀들에 비해

나는 화장이, 너무, 서툴다....

어릴 때부터 미술 점수가 썩 좋지 못했던 나는

서툰 화장을 그 랫으로 돌려 보지만

썩 유쾌하진 못하다.

거리에 나서면 내 안의 또 다른 나는

거리의 그녀들과 나를 비교하고, 절망하고, 다짐하고.

화장을 하지 않는 그들은

어떤 일인지 그녀들의 화장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녀들의 몸매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친절하기도 하지. 자세한 품평 끝에 그들은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얼굴만 이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그래, 그래서 한국 최고의 여성을 뽑는다는 미스코리아 대회에선

眞이 美보다 높은 건가 보지. 섬세하기도 하여라, 그런 배려까지.

하지만 이제 나도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시선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권력의 표시라는 것을.

내 안에서 나를 검열하는 또다른 나는

그저 절망하거나 아니면 인정해 버릴 존재가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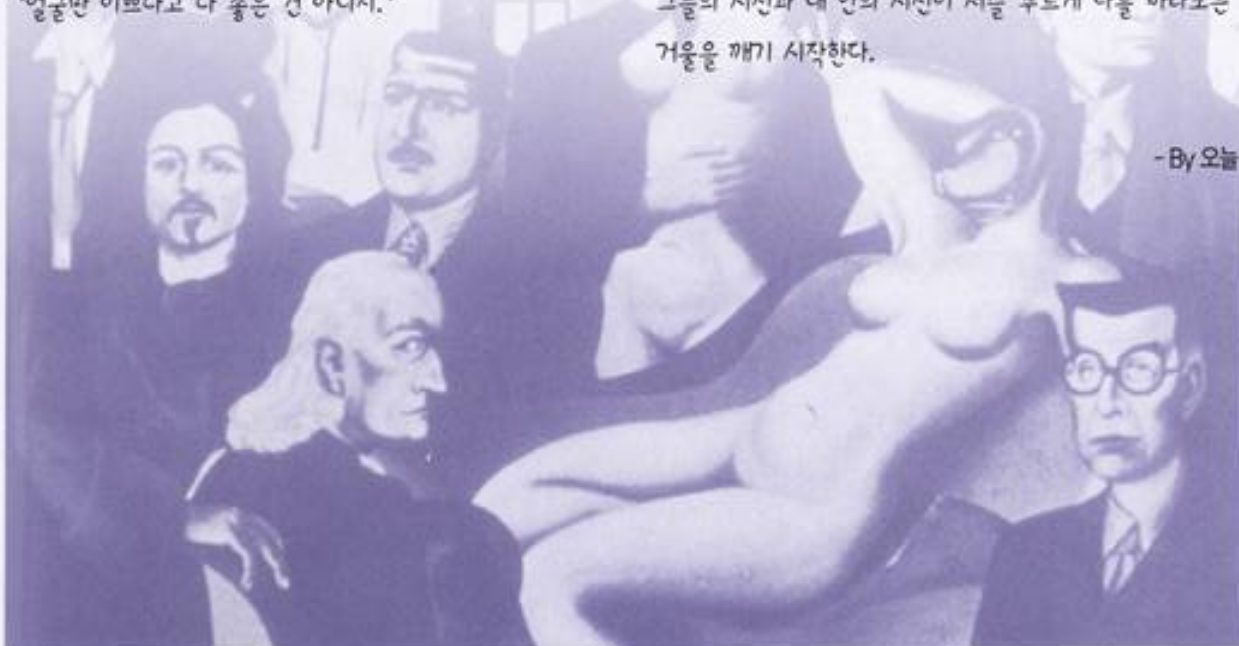
까발리고 좀 더 깊이 절망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시선과 내 안의 시선이 서늘 푸르게 나를 바라보는

거울을 깨기 시작한다.

-By 오늘



행사 일정

18일(월)

민주광장 동상앞

시선에 갇힌 여성들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19일(화)

민주광장 동상앞 낮 12시 / 개막식

춤동아리 '하리'의 축하공연

거울깨기 이벤트

푸른샘 저녁 7시 / 극단 마녀의 퍼포먼스

20일(수)

여학생휴게실 저녁 6시

"내 몸? 불편함/자랑스러움, 그 복잡한 감정들..."

- 짧은 영화보고 이야기 합니다.

21일(목)

여학생휴게실 저녁 6시

"나의 몸에 걸쳐진 것들로부터의 자유"

- 상차받은 물건들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교환합니다.

PS: 날마다 변해가는 조형물을 관찰하세요.

조형물(18일~21일)

18일(월) 와! 미인대회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일까?

19일(화) Let's break the mirror!

20일(수)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몸 바라보기, 말해보기.

21일(목) 여성의 몸을 향한 그들의 시선을 거부한다.



첫째날 행사 19일(화)

개막식 'We are mirror breakers!' - 낮 12시

우리들의 행사는, 큰 행사가 아니다. 대학가에 수많은 커다란 문화제들... 상상하게 남은 정치적 수사로서 만 우리들의 정치가 표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여성문제가 일상의 억압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정치적 의제임을 명확히 해 왔다.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의 문제제기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곳에서 출발한다.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거/부/하/고 싶지만, 나를 검열하는 또 하나의 나는 어떠한가. 여성이라면 누군들 '예뻐보인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이 순전히 나의 표현 욕구 때문일까. 이런 복잡한 감정들로부터 우리, 시작하자는 것이다. 민주광장, 이제는 정치적 활동과 학문적 활동이 마치 분리된 듯 말도 많은 그 공간에서 내 몸이 바로 전쟁터임을, 정치는 일상과 분리되지 않음을 어렵게나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춤 동아리 하리의 식전 축하공연과 거울 깨기 행사가 있을 예정.

극단 '마녀' 퍼포먼스-저녁 7시 학생회관 3층 푸른섬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언제나 억압은 행해지고 있다. 월경은 여성의 특권이 아니다. 최소한 이 사회에서는 말이다. 이 사회는 여성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일상적인 것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은 아직 완전한 자유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여성들에게 내 친구 '독종'처럼 공공 앞에서 월경통 전문약을 만들어 내라고 시위를 하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의사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의학계를 여성이 장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생리통을 없애 약이 생긴다고 쳐더라도 그것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른 개발인지, 아님 여성억압에 대한 저항의 승리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극단 '마녀' 퍼포먼스 관련 자료집 중에서)

-퍼포먼스 보기와 얘기하기



둘째날 행사 20일(수)



내 몸? 불편함/자랑스러움, 그 복잡한 감정들

-저녁 6시 학생회관 3층 여학생 휴게실

미스코리아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내 몸에 대한 얘기를 하자구? 도대체 무슨 얘길 한단 거지? 언제나 행사 때면 원가 많이 아는 듯한 사람들 불러다놓고 얘기 듣는 게 다인데.. 하지만, 생각해 보자. 미인 대회를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든가 '여성의 상품화'라는 거창한 말로 비판할 때의 답답함을. 오히려 마음 속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고 예쁜 여자들 보면 샘나고 옆에 있는 남자 동료들의 말 한 마디에 내 몸을 구속하는 나 자신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인정이 앞서지 않는가? 그렇지만 그 인정도 썩 유쾌한 것은 아니지. 이제 남이 나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의 불편함, 나의 분열증을 솔직히 꺼발해보자.

-짧은 영화 보고 이야기 합니다.

셋째날 행사 21일(목)

나의 몸에 걸쳐진 것들로부터의 자유

-저녁 6시 학생회관 3층 여학생 휴게실

둘째 날 행사와 이어지는 행사. 언제나 어느 책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다. 'nude'와 'naked'는 다르다고. 'naked'가 말 그대로 옷을 벗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면 'nude'는 옷을 벗은 것 자체가 하나의 의상이라는 것이다. 그림에서 옷을 벗은 여성의 시선은 항상 그녀를 향한 그들의 시선에 부응한다. 너무 예뻐 보여서 그냥 사 버렸다가 내 몸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서 처박아둔 옷들은 없는지... 그 때 그 시선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발에도 맞지 않는 신발을 신게하는, 눈썹을 다듬고 입술라인을 그리게 하는 그 시선으로부터 나는 언제부터 '자유'라고 외칠 수 있는 걸까. 갖가지 사연을 가진 옷들, 화장품들, 약세사리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만의 의식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상처받은 물건들 가져와서 얘기하고 교환합니다.



MISS KOREA

미스코리아대회

재밌게 보는 방법



많은 이들이 미인대회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나 100여개가 넘는 미인대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비웃을 뿐 ☆같은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의 제안을 한다. 여성하고 1순위시대에 여성에게는 취업할 수 방법을, 언론에게는 시청률과 공익성 둘 다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이 땅의 리모콘리스트들(remote-controlist)에게는 유익한 시청방법을 알려주려한다. 아래 사실을 통해 미스코리아를 좀더 재밌게 즐기길 바란다.

● 미스코리아에 당선되는 방법

- '샘물에서 옷을 모두 벗고 목욕을 하는데 어느 남자가 옷을 가져 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제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는 질문에 대해 교태있게 답변하는 능력을 기른다.

- '저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가족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장래희망이 연예인, 아나운서임을 강조해야한다. (100% 취업가능)
- 사전에 동네 미용실 이름을 몇 개 외워둬야 한다.

● 미스코리아를 중계방송하는 방법

- 정치적으로 고루한 관변언론이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 과감한 '비정치적' 쇼를 팬서비스차원에서 보여주기도 한다.
- '카메라 출동'과 같은 촬영기법을 따라야한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카메라의 시선, 특정부위를 집중적으로 다뤄야하는 집요함으로 못 시청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한다. 단, 모자이크 처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 TV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X-등급, 완전 성인(남성)용임을 밝혀야한다. (때로 이것이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

을 기억해둬야한다)

● 미스코리아를 시청하는 방법

- '왜 똑같은 여자들만 나오는 거야?' 라는 바보같은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면밀한 관찰력을 갖고 누가 누구인지를 가려낼 줄 알아야한다.
- '저는 엉덩이가 어때... 허리가 너무 굵어.' 이와 같이 부위별, 분석적 관찰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민주광장 품평회의 품평고문'으로 발탁되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
- 식어가는 가족애를 살리기 위해 온가족이 둘러앉아 '과연 누가 당선될 것인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는 것도 좋다.
-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의 유아기의 추억을 되살리는 질문(미인을 둘러싼 두 남자중 어느 사람이 더 좋은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좋아한다)과 고도의 상상력과 센스를 요하는 질문들이 ('에인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더 섹시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를 보고 웃었다면...') 계속된다. 이때 '뻔해'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참을성과 인내심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TV를 사수하자. 센스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도 마련해보자.
- 어떤 프로그램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교양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일반인의 상식과 도덕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후 TV를 보는 것이 교양인의 자세이다. 한마디로 미인대회는 IMF형 프로그램이다. 구제금융시대에 외화벌이와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함과 동시에 백수처녀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단, 대회비용에 대해 신경을 쓸 여유를 갖을 필요는 없다.

- by 제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통합적이고, 전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순진한 시절—물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아니고—세상에, 나는 중학교때 내 또래의 남학생을 은밀하게 만나서 서로가 삶에 대해 느껴지는 것들을 얘기하며 특별한 관계임을 받아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또래의 남학생들이 의외로 그들이 그들은 열 학교의 모모양을 집단으로 옹호하고는 그녀에 대한 환상을 서로 서로 키워주며 자랐다. 나는 그들을 보며 그들도 역시 나의 관계처럼 이런 견고한 인간관계를 그녀와 맺기를 바라는 것이겠거니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의 열정을 존중해 주는 편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 패거리 중에 한명이 그녀를 학원에서 보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러는 것이 아닌가. "개 장난 아니야, 가까이서 봤는 데 엉덩이가 땅에 끌리더라, 개 바려 바려." 학중3의 세상 물정 모르는 나는 그관 충격을 먹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그관 남자들을 정확히 충족시키는 몸매 치수를 넘겨버리는 바람에 외모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비바당한 것이다. 나는 내가 믿는 남자 친구들이 내가 없는 곳에서 나의 외모를



여자는 시선을 먹고 산다?

시선을 뺏어버리고 싶다

가지고 씹었다가 씹었다가 뱉었다가 나중에는 버리는 그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오늘도 백양로를 걸으면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내게 혹은 나의 여자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건넨다. "야 이쁘진 않 보나 예인 생겼구나." "야 화장하고 다녀 아픈 사람 같잖아, 그 얼굴로 용기도 좋다." "와 차차 입없네, 한번 돌아봐." "야 귀찮아먹었나?" "야, 야 화장된 것좀봐라..."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역사나 괴롭고 찜찜한 것은 왜일까? 그들은 나를 하나의 통합된 인간으로 느끼고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여자에 관한 유명한 한 남자의 명언이 있다. 어느날 그가 그의 여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지... "야, 너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다 좋으니깐 성격만 고쳐줘"라는, 이런 상황을 두고 "칭찬자도 잘생긴 남자보면 눈돌아가잖아."라고 항의하는 듯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자들에게 강요되는 미라는 것이 단지 순수하게 아름다움을 추종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다이어트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 외모 때문에 2등급 시민으로 분류되는 일,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게 오토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 출중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입사 시험에서 거절당하는 일—여자에게는 인격도, 능력도, 자질도 필요

없다. 그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외모라는 소리없는 메시지는 여자 아이가 자라오면서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섹셔될 수 있다. 그녀는 TV속에 미스코리아를 보고 남자는 대통령, 여자는 미스코리아가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아차리게 된다. 그녀는 주변의 잘 꾸며진 여자들이 어떻게 여왕처럼 대접받는 지를 보고, 그녀의 재택을 배운다.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다른 능력들은 깊은 커튼 아래 처박아놓고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남자들이 원하는 몸"을 만드는 데 쏟아부리게 되는 것이다. 참 두려운 일이다. 이제 나에게 화장은 다이어트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가족이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요즘과 관련 취업 전선에서 결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나의 표피에 머물고 그것으로 나의 가부를 매기는 시선을 거부하고 싶다. 미인 대회로 대표되는 미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자유롭고 싶다. 혹은 다양한 아름다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면들이 칭찬되고 인정되었으면 좋겠다

